

폐교 서남대 특별편입 갈등 심화

전북대 의대 학부모들 총장 등 검찰에 고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서남대학교 학생 특별편입에 반발,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생 학부모 모임' 회원 5명은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북대 의과대학장은 지난 2일 열린 의과대 교수회의에 구성원이 아닌 기금교수 16인을 참여하게 하고, 서남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전북대 의대 편입 안전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게 해 위계로서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결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남호 총장은 편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도록 불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지난 12일 헌법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생 학부모 모임' 회원 5명은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재판소에 이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재학생 200여 명 이름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학교 쪽이 서남대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후속 조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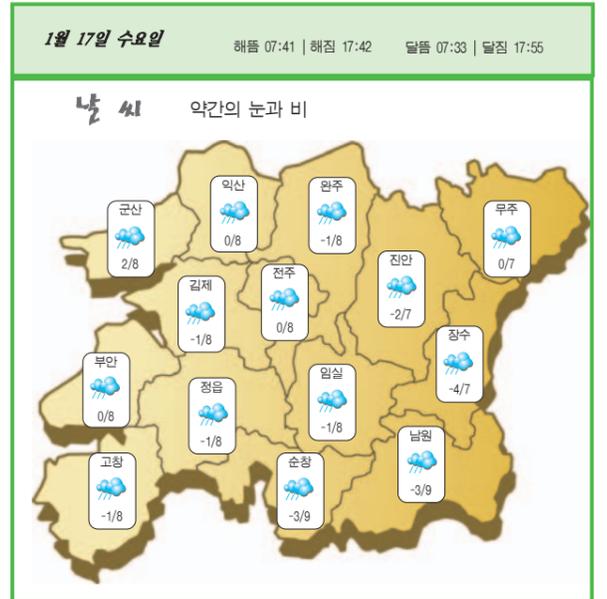
수립하지 않았다. 학교 쪽 모집요강 공고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마감된 서남대 의대생들의 전북대 의대 특별편입학 결과 총 177명(의예과 45명, 의과

과 132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교육부 폐쇄 명령으로 다음달 말 문을 닫는 서남대의 재학생은 모두 1879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생은 300명(4학년 포함)이다.

/이상민 기자



입시 전문가에게 듣는 '대입정보'

전북대, 23일 완주교육지원청서 학부모 동행 콘서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학부모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동행 대입콘서트'를 운영한다.

전북지역 14개 시, 군청 및 시, 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학부모 동행 대입콘서트'는 올해 처음으로 완주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 우선 실시하고,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학부모 동행 대입콘서트는 23일 오후 2시부터 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완주군

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여중문 입학본부장, 백승우 입학전형실장, 전임 입학사정관 등 입시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 대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대입전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법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특강 후 자녀의 진로, 진학 관련 부모의 역할 등 자녀 교육 관련 질의와 응답 등 상담도 이뤄진다. /김민근 기자

전북교사들, 8년간 73권 책 펴냈다

도교육청 출판현황 취합 저자 북토크 콘서트 추진

전북교사들이 수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경험을 모아 책으로 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교사 출판현황을 취합한 결과, 모두 70여권이 책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교사 저자를 초청, 북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북교사들이 출판한 책은 교과서, 참고서, 학교혁신, 수업, 교양, 청소년교양 등 교육분야의 서적 출판은 총 73권에 달한다. 공동저자를 포함, 100여명의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이는 시, 소설, 에세이 등 문학서적을 제외한 수치다.

교사 출판물 분야별로 보면 우선 학교혁신을 주제로 한 도서가 우선 눈에 띈다. 남궁상운 동계초 교감 등 5명의 교사들이 공동 집필한 '학교혁신의 길 아이들에게 묻다'(살림터)가 대표적이다.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을 총괄했던 박일교 교감이 펴낸 '혁신학교2.0'(에듀넷)이 이 분야에서 많이 판매되었다. 학교가 돌아왔다.(윤일호 장승초교사, 내일을 여는 책),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반역, 이은미 이리동산초 교사, 학지사)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정은균 군산영광여중 교사, 살림터) 등도 이에 속한다.

이와함께 교육과정 재구성 등 수업 혁신 등을 주제로 한 도서도 대거 출판됐다.

홍인재 전주금암초 교감의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듀넷), 정민수 전주 문학초 수석교사의 '수업성숙도, 교사의 강점을 담다'(행복한 미래), 토의토론과 함께하는 성교육(김원룡 용안중 교사/공저), 참여형 수업연구와 교사의 성장(이동남 수곡초교사 외, 학지사) 주제통합형 수업, 아이들이 수업의 주인공으로(이은미 이리백제초 교사, 살림터) 등도 눈에 띈다.

이 분야 도서 중 정성식 왕궁초 교사가 쓴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에듀넷)는 지금도 교사들 중심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혁신학교정책추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 책을 써내면서 이 분야의 서적 출판이 많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교양과 청소년교양 분야의 책도 꾸준히 나왔다. 허균씨, 홍길동전을 왜 쓰셨나요?(강영준 상산고 교사, 창비) 고교생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읽기(최기재 군산동고 교사, 부크크) 꿈단자들의 책쓰기 시간여행(이미일 전주서일초 교사, 꿈과 희망)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과서와 참고서를 집필한 교사들도 많다. 김완숙 한울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선택교과' '보건'(교육부)을 펴냈고,

이희옥 왕궁남초 교사도 미술3.4 교과서(천재교과서)를 펴냈다. 유승희 상산고 교사는 미술감상과 비평(미진사), 이신규 익산고 교사는 창업일반(성림출판사)을 냈다.

참고서는 수능7대 합정 생활과 윤리(김창훈 장학사, EBS),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의 혁명이야기(조광한 학산중 교사, 살림터), 교사성어로 새 길을 찾다(3권, 조병만 전주제일고 교사, 신아출판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지윤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전북교육청은 학습공동체와 교사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교사들의 이같은 활발한 출판 움직임은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고민,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2일 이들 교사 저자들을 초청, 북토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촘촘한 부패방지교육 운영

모든 공직자 대상 연1회·2시간 이상 의무화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부패방지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한다.

16일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돼 있다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특별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등 촘촘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 계약, 급식, 공사, 현장체험학습 등 3패취약분야의 경우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보면 우선 신

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각 전환단계별로 2~5시간 가량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4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교장, 교감 등 1,7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도 추진한다.

일반직,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법 교육을 진행한다. 청렴을 주제로 한 60시간 사이버 연수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청렴홍보도 추진한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가 아니라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